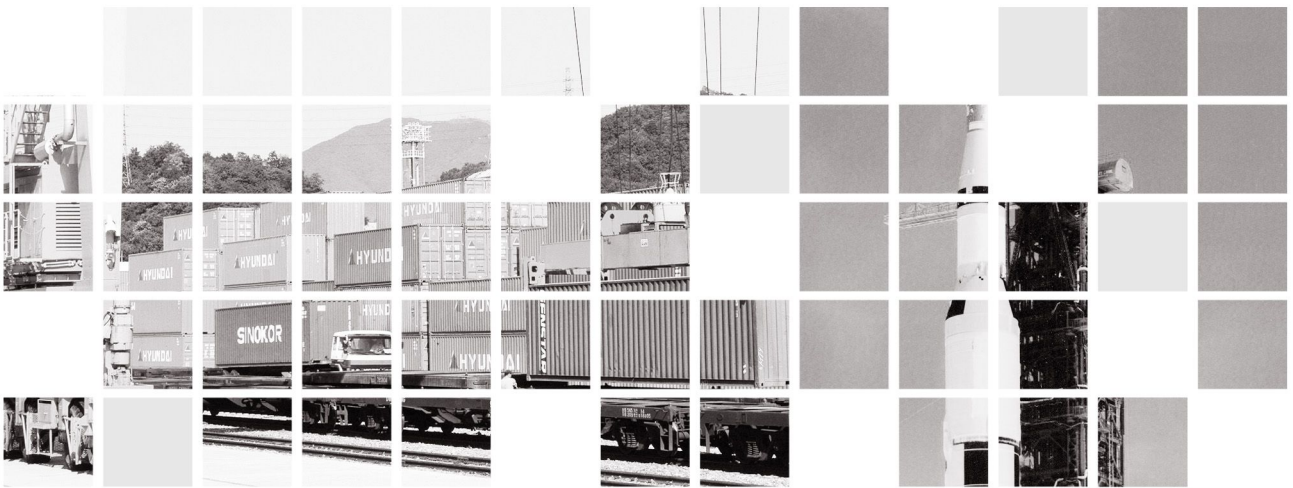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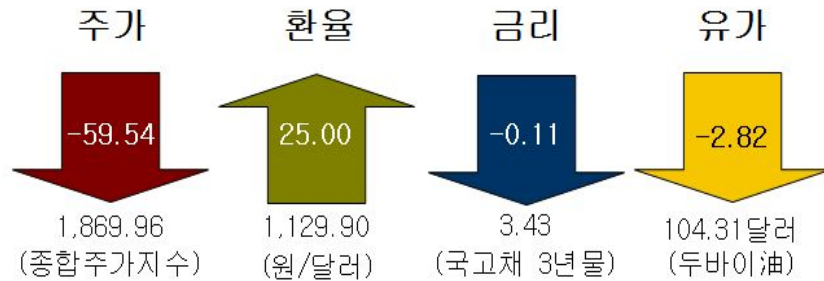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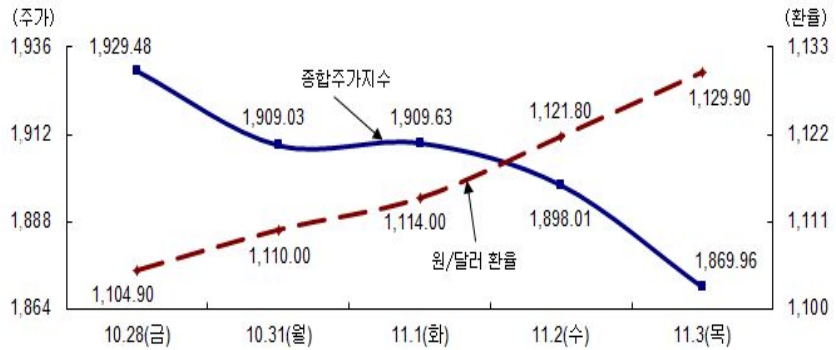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2012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
- 2012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28~11.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2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 - 2012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4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산업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 성 : 주 원 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2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장- 2012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

2012년 산업 경제의 모습

- ❖ 2012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 하강 속에 수출 제조업이 여전히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 ❖ 반면,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의 내수 관련 산업은 경기 하방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 (호황 유지 산업) 석유화학 등은 강하지 않으나 호황 국면 유지
- ❖ (경기 하강 산업) 기계,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 산업은 경기 하강 국면 진입
- ❖ (회복 지속 산업) 해운업, 조선업 등은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
- ❖ (업황 침체 산업) 건설업의 장기 침체 속, IT 산업의 불황 국면 진입

2012년 산업 경제의 특징

- ❖ 전반적인 산업 경기 둔화 속에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 2012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2011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판단
 - 다만 2012년 하반기에 들어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면 진입도 가능
- ❖ 수출 경기 하강 속에서도 세계 시장점유율 제고의 계기도 될 수 있다.
 - 세계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수출경기 둔화는 불가피
 - 단,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경제 상황 부진에 따른 중저가·고품질 제품 선호도 급증으로 한국산 제품 수요의 증가 가능성
- ❖ 주력 산업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고성장 지속
 - 개도국 수출 비중 상승, 개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상대적 선방
- ❖ 경제의 구매력 위축으로 내수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율 불안, 원자재가 상승, 가계 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실질 구매력 취약
 - 내수 산업은 가계 구매력 하락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업황 부진 예상
- ❖ IT 산업은 해외 및 국내 시장 침체의 이중고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 세계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IT 수출 경기 급랭
 - 내수 시장 위축과 수입 제품의 침투율 상승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

시 사 점

- 첫째, 산업 경기 급랭에 대비하여 내수 활성화 정책 비중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
- 둘째,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교역 위축에 따른 통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 셋째,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
- 넷째, 불황 산업의 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 2012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호황 유지 산업) 상대적으로 OECD 수출 비중이 낮은 석유화학산업은 2011년에 이어 호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강 산업)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기계,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은 2011년의 호황 국면을 마치고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이 전망된다.

(회복 지속 산업) 개도국 중심의 수출 성장세 등으로 해운업 경기는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후방 산업인 조선업 경기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황 침체 산업) 건설업이 2012년에도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IT 산업이 반도체, 패널 부문 등의 부진으로 새롭게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산업 경제의 특징

2012년 국내 산업 경제는 첫째, 전반적인 산업 경기 둔화 속에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최근 산업 지표들을 살펴보면 생산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2011년 하반기 내 경기 둔화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에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2012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2011년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년 하반기에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강해지는 않지만 침체를 탈피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수출 경기 하강 속에서도 세계 시장점유율 제고의 계기도 될 수 있다. IMF의 전망에서 보듯이 2012년 세계의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증가율은 2011년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주력 수출 산업들의 수출 경기의 하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엔화나 위안화에 대한 원화 가치의 상대적 고평가,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중저가 고품질 제품의 선호도 급증 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 주력 산업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도국은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 경제의 경우 성장률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9%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의 신흥국 시장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 시장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수출 경

기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선진국 시장 비중이 14%에 불과한 화학산업의 경우 2012년에도 호황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경제의 구매력 위축으로 내수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소비, 투자 부문의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 불안, 원자재가 상승, 고용 시장 개선 미흡, 가계 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내수 산업이 경기 하강세를 완화시켜주는 경제적 안전판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섯째, IT 산업은 해외 및 국내 시장 침체의 이중고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국내 총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IT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거시적인 경기 변동에 민감도가 높은 IT 수출이 불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최근 제조업 전체의 내수 출하 증감률 하락 속도보다 IT산업의 내수 출하 증감률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IT 내수 시장마저도 침체되어 IT산업은 수출과 내수 시장의 동반 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첫째, 산업 경기 급랭에 대비하여 내수 활성화 정책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기업 관련 규제 완화폭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교역 위축에 따른 통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2012년 국제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기 격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주요국의 경제·통상 관련 규제 변화 움직임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확보, 분석, 대응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불황 산업의 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장기 불황 국면에 있는 건설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세계 IT 시장을 소프트웨어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기(하드웨어) 제조 부문 중심의 한국 IT산업의 발전 전략을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개 요

○ 최근 국내 경기 동향

- (경제 성장 둔화)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8.5% 이후의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져 2011년 3/4분기에는 3.4%를 기록
- (내수 부진) 소비 회복세의 강도가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율은 크게 낮아지고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
 -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2.2%를 기록
 - (설비투자 정체) 3/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도 크게 낮아져 전년동기대비 1%대에 불과
 - (건설투자 감소세 지속) 201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율을 기록
- (대외거래) 대외 경제의 불안에도 수출 호조가 지속중이나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에 비해 무역 흑자폭은 축소

< 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 >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경제성장률 (%)		8.5	7.5	4.4	4.7	6.2	4.2	3.4	3.4
내수	민간소비 (%)	6.6	3.5	3.6	2.9	4.1	2.8	3.0	2.2
	건설투자 (%)	4.3	-2.3	-3.1	-2.9	-1.4	-11.9	-6.8	-4.2
	설비투자 (%)	29.1	30.5	26.6	15.9	25.0	11.7	7.5	1.4
외수	경상수지 (억달러)	3	89	99	92	282	26	55	72
	무역수지 (억달러)	29	146	106	130	412	73	83	68
	수출 (억달러)	1,011	1,202	1,163	1,287	4,664	1,310	1,427	1,422
	(증가율, %)	(35.8)	(33.1)	(22.7)	(23.8)	(28.3)	(29.6)	(18.7)	(22.3)
	수입 (억달러)	982	1,056	1,057	1,157	4,252	1,237	1,344	1,354
(증가율, %)	(37.4)	(42.8)	(24.6)	(24.6)	(31.6)	(26.0)	(27.2)	(28.1)	

자료: 한국은행.

주: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기준.

○ 2012년 대외 경제 전망¹⁾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국가채무 문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른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에 따라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0%로 0.5%p 하향 조정
- (경기 하방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심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
 -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및 확산 가능성, 미국 부동산 시장 침체, 재정건전화로 인한 정치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경기둔화가 심화될 우려
 - 신흥국은 경기과열 우려 등의 리스크가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과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 국제유가는 2011년 평균 배럴당 106불(6월 전망시)에서 103불로 하향조정
- (주요국 경제 전망) 선진국은 미국 및 유럽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나,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고성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기 하방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인 2.7%에서 1.8%로 0.9%p 하향 조정
 - 고유가 및 일본 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했으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고용시장 회복 부진도 지속
 - 재정적자 문제,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 재발,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평가
 - (유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높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낮은 잠재성장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유로 지역 경제 성장률은 기존 1.7%보다 0.6%p 하향 조정된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1)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 Slowing Growth, Rising Risks」 (2011년 9월) 참조.

- (일본) 동일본 대지진로 인한 공급 제약이 완화되고 재건을 위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및 유럽 경기 침체로 인해 전망치는 기존 2.9%에서 2.3%로 하향 조정
 - (중국) 지속적인 긴축정책 및 해외 수요 감소에 따라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및 신용확대가 둔화되었다고 평가
- (세계 교역 전망) 개도국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 경제의 부진으로 2012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기존 6.7%에서 0.9%p 하향 조정된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MF의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

(%)

	2009	2010	2011	2012(E)	
				'11.6월 전망	'11.9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0.6	5.0	4.0	4.5	4.0
선진국	-3.4	3.0	1.6	2.6	1.9
미 국	-2.6	2.8	1.5	2.7	1.8
유로지역	-4.1	1.8	1.6	1.7	1.1
일 본	-6.3	3.9	-0.5	2.9	2.3
개발도상국	2.7	7.3	6.4	6.4	6.1
중 국	9.2	10.3	9.5	9.5	9.0
러 시 아	-7.8	4.0	4.3	4.5	4.1
브 라 질	-0.6	7.5	3.8	3.6	3.6
인 도	6.8	10.1	7.8	7.8	7.5
세계 교역량증가율	-10.9	12.8	7.5	6.7	5.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

○ 2012년 국내 경제 전망²⁾

- **2012년 한국 경제 4.0% 성장 예상** : 내수 경기는 2011년 기조가 유지될 것
이나 세계 경기 회복세 약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11
년 4.2%에서 4.0%로 소폭 하락 전망
- **소비 증가세 회복** : 물가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세 소폭 둔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1년 수준에서 회복할 전망
- **설비투자 증가세 소폭 둔화** : 선진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설비 투자 증가율은 소폭 둔화 전망
- **건설투자 소폭 증가** : 기저효과로 인하여 건설투자는 다소 반등이 기대되나,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약세,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 축소로 증
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경상수지 흑자 축소** : 對신흥개도국 수출은 건조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
나 주요 선진국 경기 회복세 약화로 對선진국 수출은 둔화될 전망
 - 내수 경기가 2011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의 미약한 상
승세,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보다 높아 경
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전망
- **물가는 큰 폭으로 하락**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원화절
상 추세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2) 현대경제연구원 (2011. 9. 15.) "2012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경제주평 11-32 (통권 459호) 참조.

- 고용은 회복세 둔화 : 선진국 경기 둔화 및 국내 투자 위축 등으로 올해보다 고용 회복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 : 경기 회복세 둔화,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제약되고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지속 등으로 장기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제한된 원화 강세 :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달러 신뢰도 하락과 초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달러 약세가 지속되어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될 전망
 - 한편, 유럽재정위기 지속과 금융당국의 환율 시장 개입 가능성 등으로 절상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2012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구 분		2010	2011(E)	2012(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6.2	4.2	4.0
	민간소비 (%)	4.1	3.3	3.4
	건설투자 (%)	-1.4	-3.6	0.5
	설비투자 (%)	25.0	8.8	7.0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82.1	160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303	240
	수 출 (억 달러)	4,664	5,597	6,381
	(증가율, %)	28.3	20.0	14.0
	수 입 (억 달러)	4,252	5,294	6,141
	(증가율, %)	31.6	24.5	16.0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		2.9	4.3	3.5
실업률 (평균, %)		3.7	3.5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085	1,050
국고채 수익률 (3년)		3.7	3.8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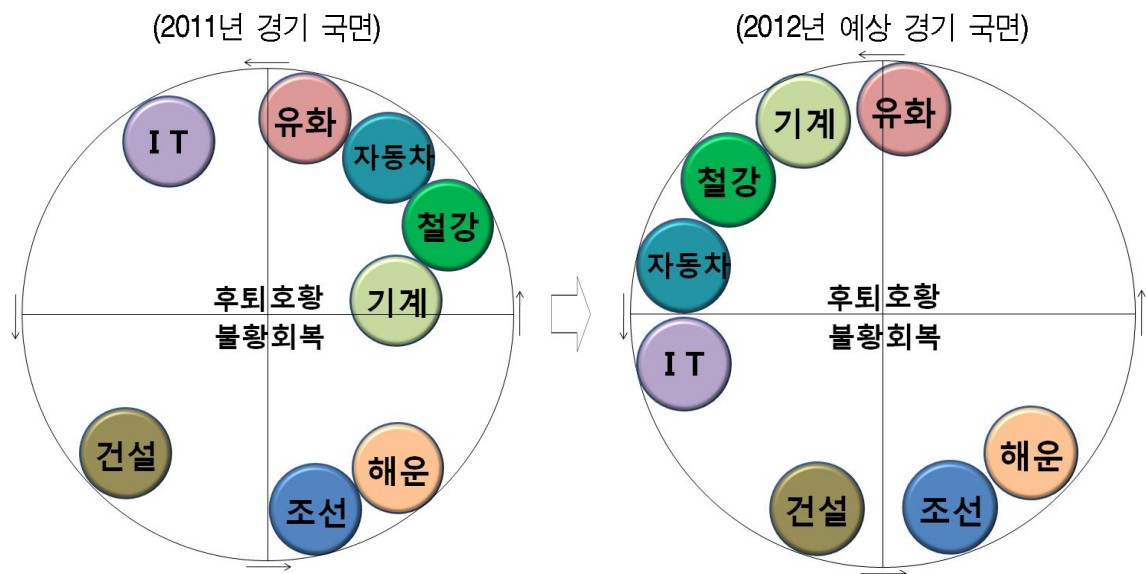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2012년 산업 경제의 특징

(1)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호황 유지 산업) 상대적으로 OECD 수출 비중이 낮은 석유화학산업은 2011년에 이어 호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기 하강 산업)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기계,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은 2011년의 호황 국면을 마치고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이 전망
- (회복 지속 산업) 개도국 중심의 수출 성장세 등으로 해운업 경기는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후방 산업인 조선업 경기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업황 침체 산업) 건설업이 2012년에도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IT 산업이 반도체, 패널 부문 등의 부진으로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2) 2012년 산업 경제의 특징

① 전반적인 산업 경기 둔화 속에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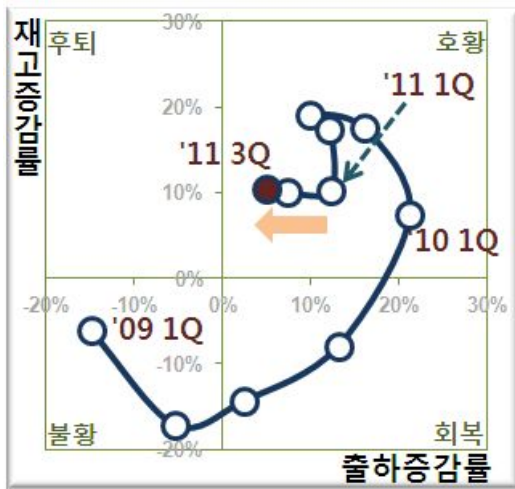
○ 2012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2011년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판단

-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 국면은 2011년 3/4분기 현재 재고-출하 사이클상 호황 국면에 위치
- 그러나 재고증가율과 출하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제조업 경기는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임박
- 2012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기 하강세가 이어지면서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불황의 강도가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

○ 다만 2012년 하반기에 들어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면 진입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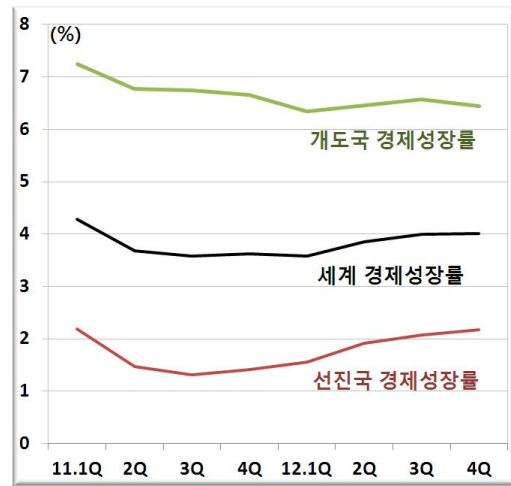
- 2012년 국내 산업 경기의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012년 하반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면의 가능성이 존재
- IMF는 2011년 9월 전망에서 향후 개도국들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도 2011년 3/4분기를 저점으로 2012년말까지 완만한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은 2012년까지 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1년 3/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1.3%에서 2012년 4/4분기에 2.2%에 이를 때까지 완만한 성장률을 전망

< 제조업 재고 - 출하 사이클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IMF 분기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② 수출 경기 하강 속 세계 시장점유율 제고의 계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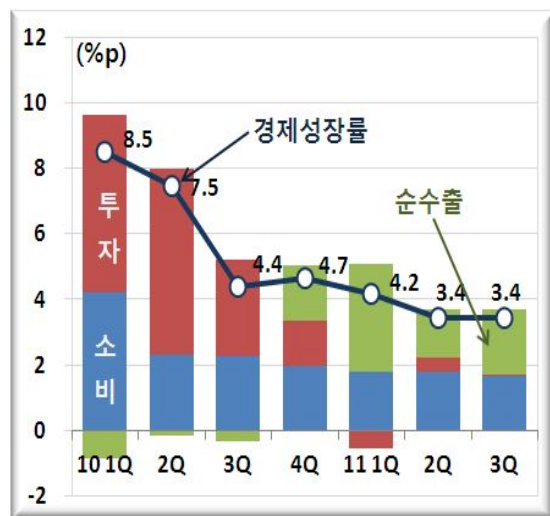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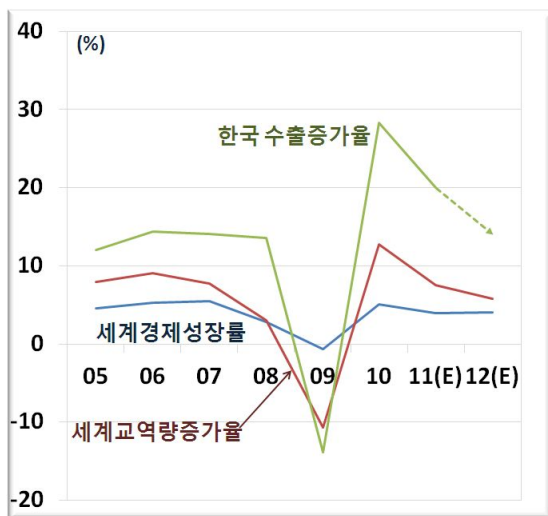
○ 세계 경제 성장 부진에 따른 세계 교역량증가율의 하락

- 국내 수출 산업 경기는 상당 부분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교역량증가율에 의존하는 바가 큰데 IMF의 전망에서 보듯이 2012년 세계 교역량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1년과 2012년 4.0%로 동일하나 세계 물동량증가율은 2010년 12.8%에서 2011년 7.5%에 이어 2012년에는 이보다 낮은 5.8%로 예상
- 특히, 그동안 국내 수출 산업들이 일본 대지진에 따른 동북아 분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반사 이익을 얻기도 하였으나 최근 일본의 산업 생산이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일시적 효과도 소멸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경기의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달러화 통관 기준으로 수출액증가율은 2011년 20%에서 2012년 14% 내외로 하락할 예상
 - 따라서 2012년 수출의 성장 기여도 역시 2011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저가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점유율 제고의 기회 가능성 대두

-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 원화 가치의 상대적 고평가,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중저가 고품질 제품의 선호도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중저가이면서도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판단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국내 수출증가율 > < 국민계정 주요 부문별 성장기여도 >



자료: IMF, 지식경제부, 통계청, 한국은행.

주: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량 증가율의 2011년 및 2012년은 IMF 전망치, 한국 수출증가율의 2011년 및 2012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③ 주력 산업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 상승

○ 개도국 경기의 상대적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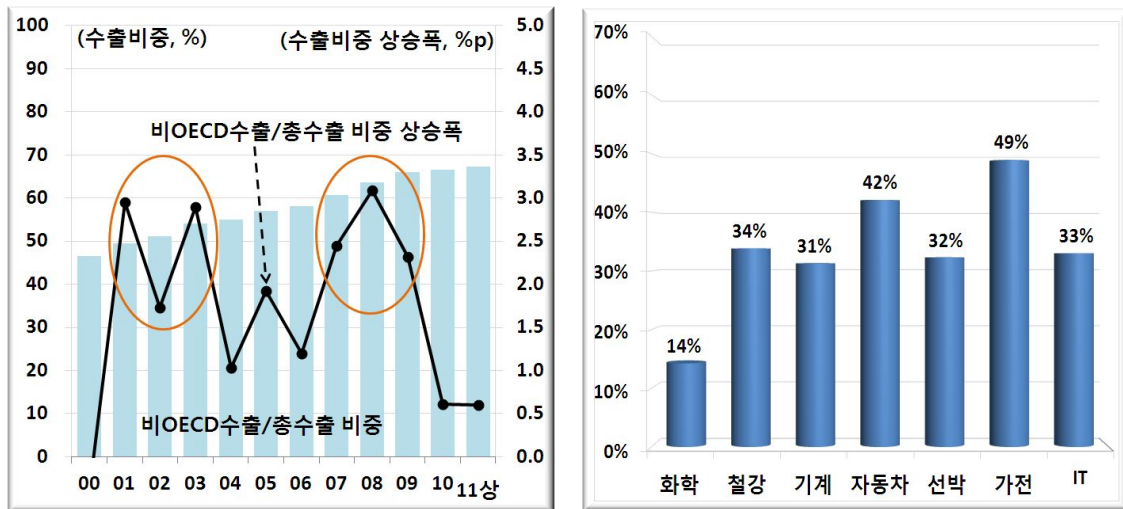
- 선진국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IMF는 선진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2.6%에서 0.7%p 하향 조정한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반면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미국 및 유럽의 위기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2011년 6.4%에서 2012년에도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 경제의 경우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성장률 9%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 10.3%에서 2011년 9.5%에 이어 2012년에 9.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개도국 시장 비중이 높은 산업의 수출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

- 세계 경제가 침체를 보였던 2001년 부근과 2008년 부근의 한국의 개도국 수출 비중 상승 폭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2년에도 주력 산업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닷컴 버블 붕괴기인 2000년 한국의 비OECD수출/총수출 비중은 46.4%에서 2001년에 49.4%로 3%p가 급증
 - 2008년에도 비OECD수출/총수출 비중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2009년에도 2.3%p가 증가
 - 이는 선진국 경제가 침체를 보이는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개도국 수요가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고 따라서 비OECD수출/총수출 비중이 상승
- 다른 주력 수출 산업에 비해 선진국 시장 비중이 낮은 화학산업의 경우 2012년에도 호황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화학 산업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는 48%에 이르고 있어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한다면 상당 기간 호황 국면에 위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반면 자동차, 가전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 하강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비OECD 수출 비중 및 비중 상승폭 > < 주요 산업별 대 OECD 수출 비중('10년) >



자료: 한국무역협회.

④ 경제의 구매력 위축으로 내수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 증대

○ 내수 산업 저성장 지속

- 2011년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를 지속중
- 2012년 소비, 투자 부문의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환율 불안, 원자재가 상승, 고용 시장 개선 미흡, 가계 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최근 실질 GNI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경제 전반의 소비 구매력이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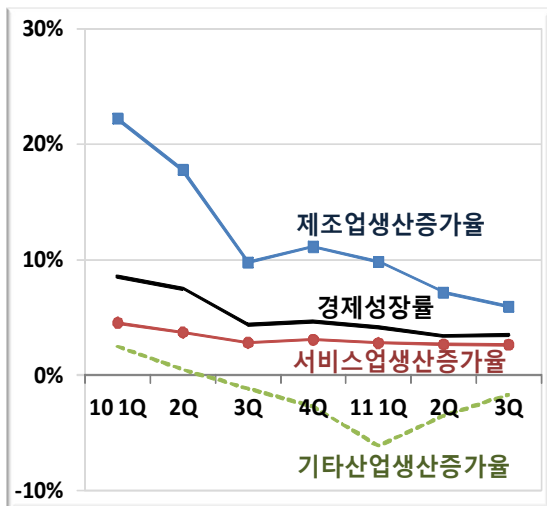
- 따라서 향후 내수 산업이 경기 하강세를 완화시켜주는 경제적 안전판의 역할을 하기는 기대난

○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 가능성 증대로 내수 산업의 상대적 경기 하방경직성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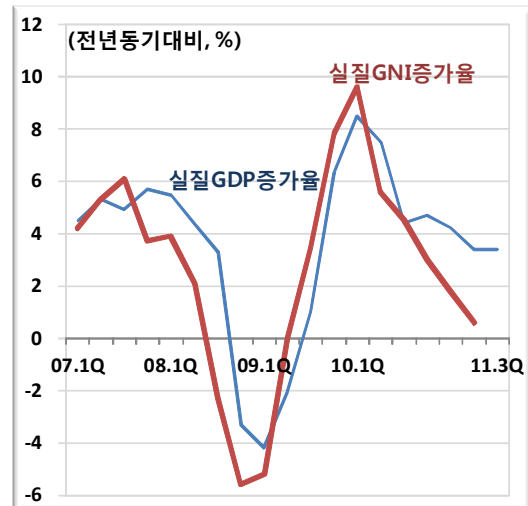
- 수출 경기가 악화될 경우 정부의 내수 부양을 위한 경제 정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
 · 현재까지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경기부양’으로의 정책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및 유럽의 경제 위기와 같은 대외 경제 여건의 극단적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내수 부문도 급격하게 동반 침체되어 수출과 내수의 경기 ‘커플링(coupling)’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주요 산업 생산증가율 >



< 실질GDP 및 실질GNI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⑤ 수출 경기 급랭과 내수 침체의 이중고에 직면한 IT 산업의 위기

○ 세계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IT 수출 경기 급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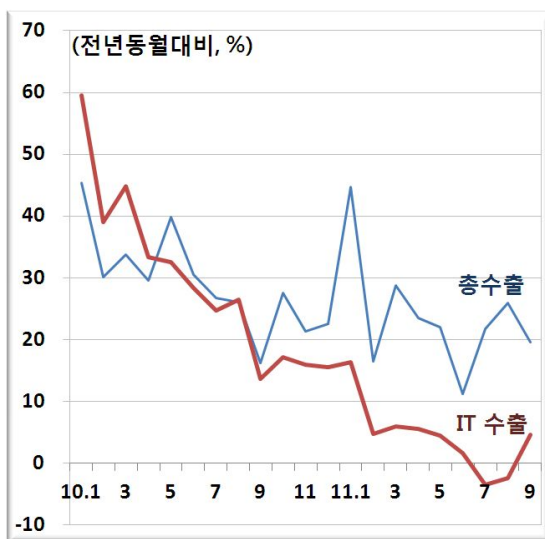
- 2010년 10월 이후 IT수출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IT-비IT 간의 수출 경기의 양극화가 진행중
 -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은 2011년 1~9월 전년동기대비 23.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9월에도 18%대의 경기 호조 양상을 시현
 - IT산업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9월 전년동기대비 3.8%에 불과하며 특히 7월과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마저 기록
- 품목별로 보면 IT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가 2011년 1~9월에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19.8% 비중)도 같은 기간 8.7% 감소
 - 다만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 폰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2011년 1~9월에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

○ 내수 시장 위축과 수입 제품의 침투율 상승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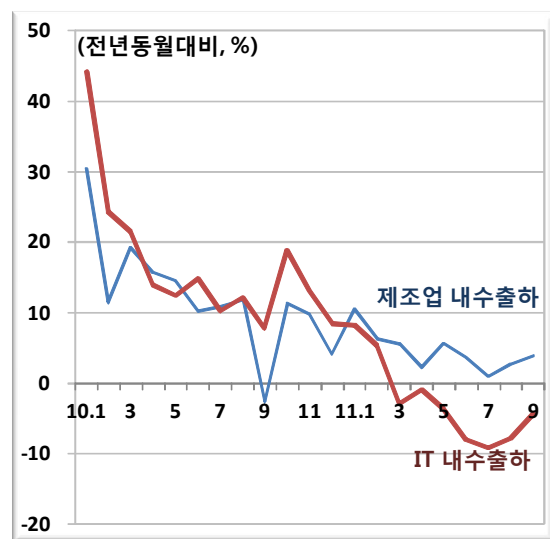
- 2011년에 들어 제조업 전체의 내수출하 증감률 하락 속도보다 IT산업의 내수출하 증감률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
 - 제조업 전체의 내수출하 증감률은 2011년 1월 전년동월대비 10.5%에서 2011년 9월 3.9%로 둔화
 - IT산업의 내수출하 증감률은 2011년 1월 전년동월대비 8.2%에서 3월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11년 7월에는 -9.2%까지 하락, 9월에도 -4.4%를 기록
- 한편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제한된 내수 시장조차도 국내 제품의 점유율 하락이 진행중

- 우리나라의 IT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9월 전년동기대비 3.8%에 불과한 반면 외국산 IT 제품에 대한 수입은 2011년 1~9월중 12.0%가 증가
- 수입 지역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IT 수입 비중이 2010년 34.8%에서 2011년 1~9월중 36.0%로 높아졌으며, 2011년 1~9월 對 중국 IT 제품 수입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7.2%를 기록

< 총수출 및 IT수출 증가율 >



< 전제조업 및 IT 내수출하증가율 >



자료: 통계청, 지식경제부.
 주: IT 내수출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시사점

첫째, 산업 경기 급랭에 대비하여 내수 활성화 정책 비중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

- 2012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2011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산업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고려할 시점으로 판단

-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기업 관련 규제 완화폭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

둘째,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교역 위축에 따른 통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 2012년 국제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기 격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존재
- 특히 유례없는 국가적 재정위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직간접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주요국의 경제·통상 관련 규제 변화 움직임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확보, 분석, 대응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

셋째,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

- 수출 경기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 시장의 수요 침체를 신흥 개도국에 대한 수출로 보완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이 요구
- 이에 따라 중국 등 신흥 공업국과 최근 유가 상승으로 다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산유국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을 경주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

넷째, 불황 산업의 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 우선 장기 불황 국면에 있는 건설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대두

-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의 단기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건설업의 영세성과 후진성 극복을 통한 산업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고도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근본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
- 그러나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주택 매매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도 노력을 경주

- 세계 IT 시장을 소프트웨어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기(하드웨어) 제조 부문 중심의 한국 IT 산업의 발전 전략을 재고(再考)할 필요성 증대

- 글로벌 IT 기업들이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결합해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 등 IT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중
- 향후 IT제조업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보임에 따라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 중심의 한국 IT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
- 메모리반도체, 패널 중심의 수출 비중을 낮추고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기 등의 고부가 제품 위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

【부록】 산업별 최근 경기 동향과 2012년 전망

① 조선업	18
② 기계산업	21
③ 자동차산업	24
④ 철강산업	27
⑤ 석유화학산업	30
⑥ 해운업	33
⑦ IT제조업	36
⑧ 건설업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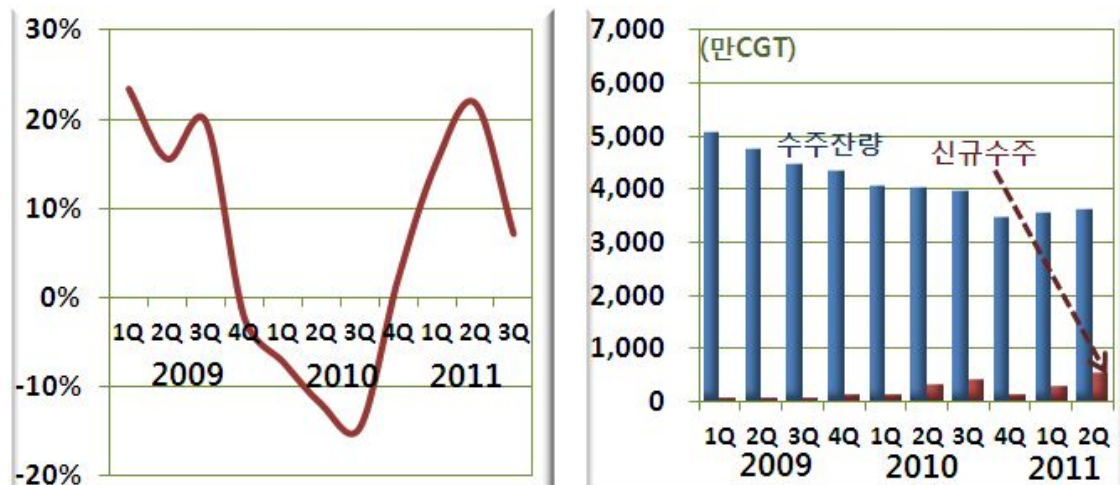
① 조선업

2012년 조선업은 고부가 선박 수주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신규 수요가 정체 될 가능성이 높아 빠른 경기 확장세는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11년 경기 동향) 2010년 경기 침체 국면에서 탈피하여 회복세로 전환

- (생산) 2011년 조선업 경기는 기술적 반등 효과로 증가세 유지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1년 3/4분기 전년동기 대비 7.1%로 2011년 2/4분기의 21.7%보다는 하락
- (수주) 신규수주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수주잔량도 전기대비 증가세로 전환
 -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의 2011년 2/4분기 신규수주는 2011년 1/4분기의 277만 CGT³⁾의 두 배인 519만 CGT를 기록, 단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4분기의 770만 CGT의 67%정도 수준에 불과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 국내 조선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조선협회.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은 9개 회원사 기준.

3)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2년 전망)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수주량은 2011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 (수주량) 유조선과 벌크선 수주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11년 호황을 보였던 특수선 분야의 수요 증가율 정체로 2012년 조선업 전체 수주량은 2011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 드릴 쉽, FPSO 등 해양 시추관련 선박에 대한 수요는 국제 유가 변화와 밀접히 연관
 - 2012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특수선에 대한 시장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건조량) 기존의 높은 계약 물량 수준으로 201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선박의 건조는 계약에 의거한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며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 2012년에 건조되는 물량은 주로 2010년에 발주한 선박과 그 이전에 발주되어 건조 기간이 길어진 선박으로 전체적인 건조 물량은 2011년보다 증가 전망
 - (수출) 고부가가치 특수선을 중심으로 2~3년전 계약된 물량이 인도되면서 선박 수출은 2011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2년은 고부가가치 특수선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부문에서의 성장 정체를 상쇄해 전체적으로 수출은 2011년보다 증가하지만 그 폭은 축소 예상

< 조선업 전망 >

	2010	2011(E)	2012(E)
신규수주량 (만 CGT)	815 (478%)	1,500 (84%)	1,500 (0%)
건조량 (만 CGT)	1,269 (3%)	1,400 (10%)	1,500 (7%)
수출규모 (억 달러)	467 (10%)	580 (25%)	660 (15%)

자료: 실적치는 한국조선협회(수주량, 건조량은 회원사 9개 합계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 압력 증대, 중국의 특수선 시장 진입, 녹색기술 적용 선박 건조 수요 증가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압력 증대) 선박 발주가 소수 대형 조선사에 집중되면서 중소형 조선사들의 경영 악화와 대형조선사들 간의 경쟁력 확보가 업계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해양시추설비,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의 경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에 집중
 - 반면 중소 조선사들은 중국의 추격에 따른 중소형 저부가 선박 시장의 점유율 하락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퇴출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특수선 시장 진입) 중국 조선사들의 세계특수선 시장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과의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대형 LNG선과 반 잠수식 드릴 십, 호화유람선 등을 10대 중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국내 수요 특수선을 국내 조선 업체에 발주
 - 그 결과 중국내 LNG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가 4~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중국이 세계 특수선 시장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한국과의 수주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 (녹색기술 적용 선박 건조 수요 증가) 해운업에서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면서 신규발주 선박에 대한 녹색기술적용 요구가 증가할 전망
 - MARPOL⁴⁾은 2016년 1월 1일까지 신조선박에서 디젤유연소 시 특정물질을 90%까지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80%까지 제거 규정
 - EU는 2020년까지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일 것을 이미 결정하였고 7월 열리는 환경관련 회의에서 IMO(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에너지효율등급(energy efficiency index)' 채택을 요구할 예정
 - 해운사가 새로 선박을 발주할 경우 배출가스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조선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An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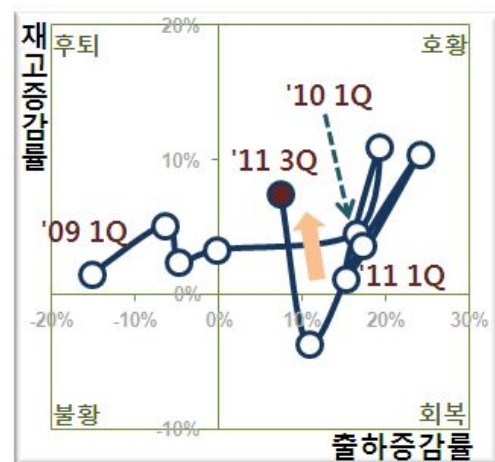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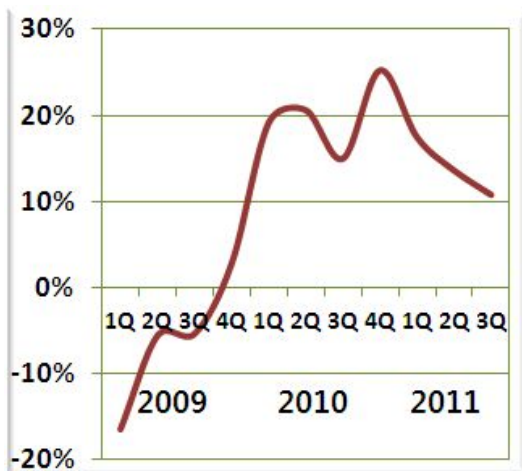
② 기계산업

기계 산업은 신흥국에 대한 수출 호조 지속이 예상되나 선진국 시장 수요 정체,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 약화 등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경기 동향) 내외수 호조로 인해 생산 및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호황 국면에 위치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 경기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국내 설비투자 증가, 신흥국 고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기계 산업의 생산이 증가세를 지속, 다만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는 모습
 - 한편 출하 증가율이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재고 증가율은 3/4분기에 들어 다시 높아지는 모습
- (수출) 세계 경제가 강해지는 않지만 회복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아시아,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에 대한 기계 수출은 호조를 지속중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2년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 부진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기계산업의 수출 및 생산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내수 정체) 경제 전반의 수출 증가세 약화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한국의 주력 제조업의 수출도 제한적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제조업 설비투자가 대체·보완 투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기계산업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수출 둔화) 글로벌 수요 둔화,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 감소,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기계산업 자체의 수출 증가율도 하락할 전망

- 개도국은 고성장으로 기계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유럽 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으로 기계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판단
- 또한 대지진 이후 일본 기계 산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재인 한국 제품이 누린 반사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미국의 저금리 정책 지속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

- (수입 증가) 한편 한-EU FTA로 인해 EU 지역에서의 고품질 기계 제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계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

< 기계산업 전망 >

구 분	2010	2011(E)	2012(E)
생 산 (조원)	90 (25%)	102 (13%)	111 (9%)
수 출 (억불)	378 (33%)	450 (20%)	495 (10%)
수 입 (억불)	332 (27%)	360 (9%)	385 (7%)

자료: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미디엄 테크의 한계 표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거대 기계 수입국인 중국 시장에서 경쟁 심화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

- 중국은 한국 기계 산업의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의 기계 수입국으로 중국의 기계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러나 기계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 인수 합병을 통한 우량화 전략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자국산 제품 점유율이 상승중
- 향후 독일,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주력 기계 수출국들의 대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하락이 우려

- (미디엄 테크의 한계 표출) 저부가와 고부가 시장 사이에 위치한 미디엄 테크 시장 중심인 한국산 제품의 입지 축소가 우려

- 우리나라의 기계 품목 무역흑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흑자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는 원천기술 확보, 부품·소재의 국산화 등 기계 산업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획기적인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평가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기술·저부가 시장은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기술·고부가 시장은 일본, 독일 등 산업 선도국의 시장 장악력이 확고하여 중기술 중심의 한국산 제품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

-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요 정체,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원자재가 변동성 심화 등으로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

- 수출과 내수 시장의 확장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업계 매출의 빠른 성장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채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
- 특히 수출 기업의 경우 원화 강세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경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선도형 시장에서 해외 현지 판매 가격에 환율 손실분을 반영하기 어려워 채산성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중고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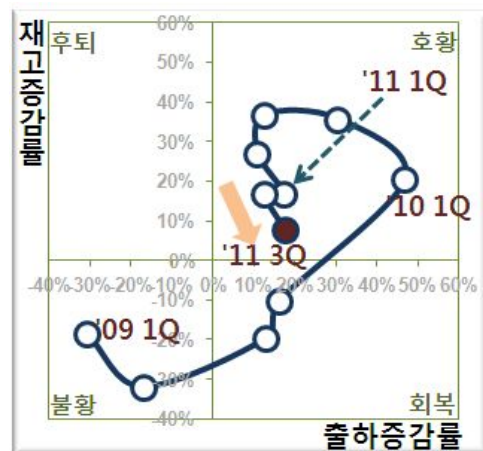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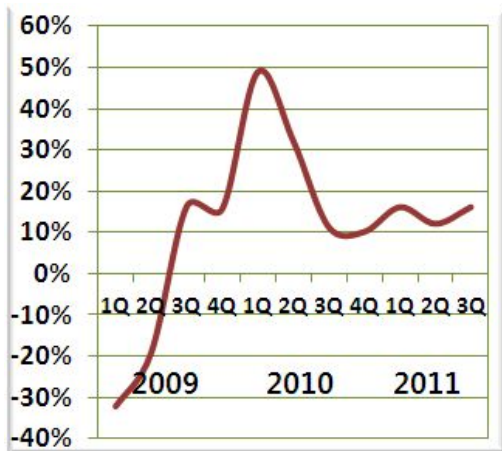
③ 자동차산업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 수요 확대로 치열한 경쟁이 전망

○ (2011년 경기 동향) 내수 및 수출 시장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내외 수요의 동반 회복세 지속, 신차 출시 등으로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
 - 2011년 3/4분기까지 자동차산업 생산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세를 지속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 2011년 3/4분기 현재 출하와 재고가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는 호황 국면에 위치
- (수출) 세계 자동차 수요 증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일본 대 지진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
 - 2011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1%가 증가한 약 154만여 대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물량을 기록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2년 전망) 선진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 약화가 예상되며 내수 시장도 제한적인 성장세 전망

- (수출 증가세 약화) 선진국 시장 위축으로 2012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
- 다만 국산차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신흥 시장의 성장세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제한적인 내수 시장 확대) 소비자 구매력이 크게 확충되기 어려워 내수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확대가 전망

- 고용 시장 부진, 가계 부채 문제의 지속 등으로 소비자 구매력의 대폭 확충은 기대하기 어려워 자동차 내수 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연비가 높은 경차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시판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의 시장 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한-EU FTA의 체결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침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10	2011(E)	2012(E)
생 산 (만대)	427 (22%)	450 (8%)	460 (2%)
내 수 (만대)	147 (5%)	150 (2%)	155 (3%)
수 출 (만대)	277 (29%)	300 (8%)	305 (2%)
수 입 (만대)	10 (52%)	11 (14%)	13 (18%)

자료: 실적치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치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일본 자동차 생산능력 회복, 친환경 정책 강화, 스마트카 경쟁 본격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일본 자동차 업계의 반격) 2012년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대지진으로 붕괴된 대부분의 공급망을 복구하여 생산 능력을 회복함에 따라 시장 탈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 일본 업체들이 북미 시장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생산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시장 탈환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얻었던 반사 효과가 소멸되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친환경 규제 강화) 미국 정부가 자동차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의 연구개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정부는 2025년까지 연비 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전기차와 천연가스 차량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
 - 변경되는 연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국, 일본산 자동차보다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유럽산 자동차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 완성차 업체들 간 연비 경쟁, 하이브리드차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 연구 개발 투자 비용 상승 등의 경영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카 개발 경쟁 본격화)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스마트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자동차 기업의 IT 기업에 대한 제휴 또는 M&A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 BMW는 차량에 내장된 센서로 주변 교통 흐름 등을 수집해 최적의 운행 경로를 탐색해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음악을 틀어주고 쇼핑 장소를 안내하는 등의 스마트카 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음
 - 2011년 4월 도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9월 현대차와 인텔이 손잡고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향후 글로벌 스마트카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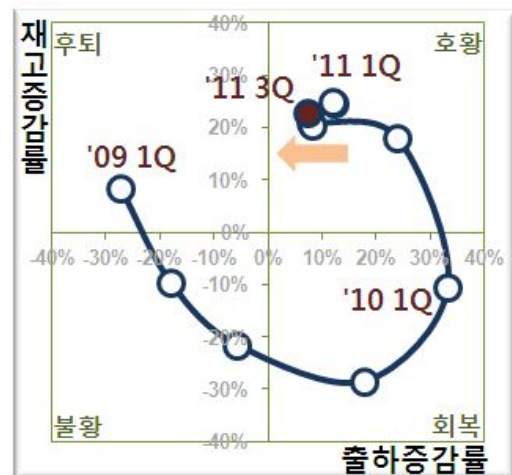
④ 철강산업

2012년 철강재의 내수 및 국내 생산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량은 2011년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11년 경기 동향) 내수와 수출 시장 호조로 호황 국면에 위치

- (생산 및 재고·출하) 최근 6분기 연속으로 생산 및 재고·출하 지수가 모두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강도는 하락
 - 다만 생산 지수는 증가세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2010년 4/4분기 이후 10%대에서 횡보하며 점진적인 하락 추세
 - 2010년 2/4분기 이후 재고와 출하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호황 국면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후퇴 국면으로의 진행과 후퇴를 반복하는 상황
- (수출) 2011년 7월 누적 기준 철강제품⁵⁾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은 42.2%, 수출 물량은 18.7% 증가하며 호조를 지속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5) MTI 61 기준.

- (2012년 전망) 주력 철강 수출 시장인 개도국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과 선진국 수출 시장의 수요 정체로 큰 폭의 산업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
 - (수출 중심의 수요 증가) 철강재 내수 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이거나 수출은 선진국 경기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철강재 내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업은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지만 중요한 수요처인 건설업 침체로 내수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수출은 미국, 유럽 등의 경기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철강재 수요 지속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입 대체 효과의 둔화) 국내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치는 반면 2011년 크게 감소했던 수입량은 2012년에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2년의 철강재 국내 생산은 내수의 제한적 증가 및 공급 능력 과잉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반면 수입은 국내 생산 능력 확대 및 일본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가 둔화되어 2011년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철강 산업 전망 >

(단위: 만 톤)

구 분	2010	2011(P)	2012(P)
총수요	7,727 (17%)	8,140 (5%)	8,500 (4%)
	내수	5,239 (15%)	5,470 (4%)
	수출	2,488 (21%)	2,670 (7%)
총공급	9,103 (17%)	9,270 (2%)	9,500 (2%)
	생산	6,594 (16%)	6,930 (5%)
	수입	2,509 (22%)	2,340 (-7%)

자료: 2010년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2011, 201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됨.

- (주요 현안) 업계 채산성의 악화 우려 완화, 해외 자원 확보 및 현지 생산
 붐, 업계 내 고부가가치화 노력 경쟁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업계 채산성 악화 우려 완화) 원재료 공급업체의 생산 능력 확대 및 원/
 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 등으로 철강 제조업체 채산성의 추가 악화 우려
 완화
 - 리오틴토, 발레 등 원재료 공급업체의 생산 시설 확충의 단계적 완료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원재료 수입 가격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한편 2011년 원재료 가격 급등에 비해 철강재 가격은 상승폭의 제한을 받
 은 바 있어 향후의 가격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따라서 그동안 생산 비용 증가 및 판매 가격 제한으로 고전을 경험했던 국
 내 철강 제조업체 채산성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 (해외 자원 확보 및 현지 생산 붐) 원재료 자급률 제고 및 해외 제철소 건설
 등과 함께 철강 업체들의 원재료 및 제품 운송 능력 확보가 이슈로 부상
 - 이미 해외 자원 확보에 적극적인 포스코를 비롯하여 국내 철강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현지 원재료의 직접 확보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제철소 및 동국제강의 브라질 제철소 건설 등과
 같이 해외 제조 능력 확충에 대한 관심의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철강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 확보한 원재료와 생산한 철강재에
 대한 운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업계 내 고부가가치화 노력 경쟁) 철강재의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대응
 으로 생산량 조정이 이슈화되고 고급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
 -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여 핫코일 등 반제품을 중
 심으로 하는 생산량의 조정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존재
 - 나아가 생산량 조정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어 조강 부분 등 철강재 생산 구
 조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업체들의 경량화 및 고강도화 등 고부가가치
 철강재의 개발을 통한 수익성 향상에 주력할 유인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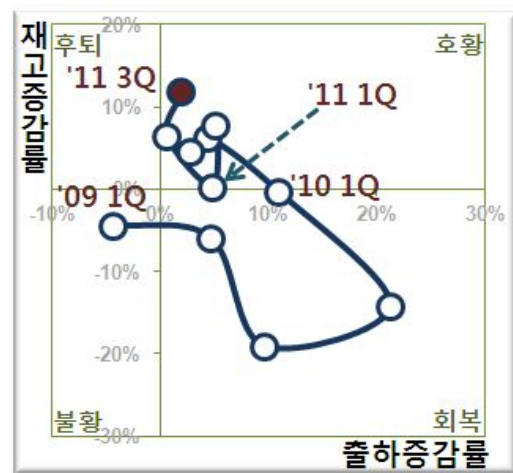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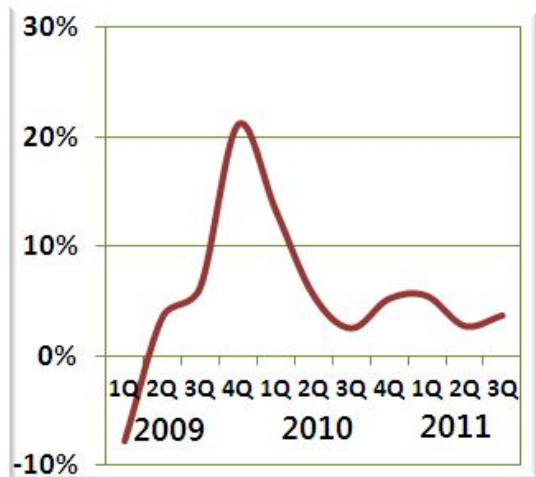
⑤ 석유화학산업

내수 부문은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로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수출 부문은 신흥공업국 중심의 수요 증대로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경기 동향) 국내외 수요 둔화로 생산 및 수출 증가세 하락

- (생산 및 재고·출하)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0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하가 정체되는 모습
 -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고유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증가율 자체는 둔화
 - 한편 석유화학 산업의 출하는 정체되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기 후퇴 국면으로 진입 가능성이 증대
- (수출입) 고유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2011년 상반기 누적 수출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7.8% 증가하였으나 수출 물량은 1.1% 증가하는 데에 불과⁶⁾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6) MTI 기준 21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을 의미함.

○ (2012년 전망)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내수 시장 성장세 둔화 속 신흥공업국 중심의 수요 증대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내수 증가세 둔화) 빠르지 않은 경제 성장으로 전방 산업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 둔화가 예상되어 내수의 제한적 성장 전망

-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해 자동차, IT산업 등 주요 전방 수출 제조업의 석유화학 중간재용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이 예상
- 또한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국내 건설업의 중간재 수요도 부진할 것으로 판단

- (수출량의 미약한 증가세 지속) 글로벌 과잉공급의 완화, 신흥국 수요 증가 지속 등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동 및 중국의 석유화학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 감소로 글로벌 과잉공급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공업국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국산화 정책, 선진국의 수요 침체 등 수출 환경의 악화 요인도 존재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10	2011(E)	2012(E)
생 산 (만톤)	2,136 (2%)	2,170 (2%)	2,200 (1%)
수 출 (만톤)	1,182 (△2%)	1,190 (1%)	1,210 (2%)
수 입 (만톤)	85 (10%)	92 (8%)	100 (9%)
내 수 (만톤)	1,025 (8%)	1,072 (5%)	1,100 (3%)

자료: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 (주요 현안) 업계 채산성 악화, 북미 및 중국의 셰일 가스 개발 붐, 고부가·친환경 제품 생산 본격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업계 채산성 악화 우려)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단가 상승 제약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석유화학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
 - 국제 석유화학 제품 시장은 전체의 수급 요인에 의해 단가가 결정되어 일개 공급자가 가격 결정자(price-taker)의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 한편 원화 강세가 예상되나 국내 기업들이 원화 절상폭을 제품 가격에 환율 전가(exchange rate pass-through)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특히 국내 석유화학 관련 기업중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채산성 악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
 - (북미 및 중국의 셰일 가스 개발 붐) 북미 지역의 셰일 가스 채굴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의 셰일 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중국도 향후 셰일가스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최근 북미 지역에서 대량의 셰일가스(Shale Gas)⁷⁾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저가의 가스 공급을 바탕으로 북미 석유화학산업이 활성화
 - 한편 EIA에 따르면 채굴 가능한 중국 셰일가스 자원량은 미국의 1.5배 수준인 36조m³규모로 중국 석유화학산업도 셰일가스에 대한 개발과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고부가·친환경 제품 생산 본격화) 고부가·친환경 생산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2년에는 관련 제품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
 - 범용제품 경쟁 심화, 환경문제 등에 따라 신소재, 바이오 화학과 같은 고부가·친환경 제품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이와 관련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고기능성 소재 산업, 2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미래 친환경 성장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크게 확대중
 - 고부가·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설비 증설 및 신공정 도입에 따라 2012년부터 고부가·친환경 제품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

7) 셰일가스(Shale Gas)란 천연가스의 일종으로 혈암(Shale Rock)층에 함유된 메탄가스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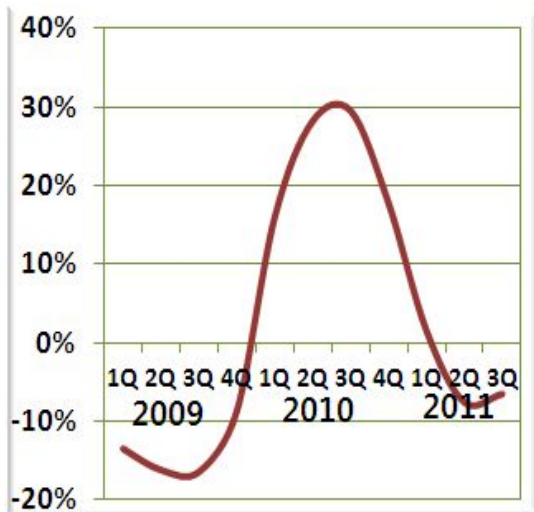
⑥ 해운업

2012년 해운업은 선진 경제 회복과 신흥개도국의 성장세로 완만한 물동량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경기 동향) 신흥국 경제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 불안 표출로 업종 경기가 혼조세를 시현함

- (산업생산지수) 2/4분기 이후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가율이 감소세 기록
 - 다만 외항운송업 산업생산지수는 2011년 2/4분기 -7.5%에서 3/4분기 -6.5%로 소폭 개선됨
- (해운시황) 외항운송업 중 벌크 및 컨테이너 부문 물동량의 혼조세가 관찰됨
 - 벌크선 BDI는 상반기 동안 감소세를 지속하다 하반기 들어 상승세 반전
 - 컨테이너 HRCI는 2011년 상반기 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후 하반기 들어 변동성이 확대됨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BDI 및 HRCI 추이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주: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2년 전망) 선진국 경제 회복세와 신흥개도국의 성장 수요로 인해 물동량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컨테이너선)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가운데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으로 물동량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
 - 신흥개도국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컨테이너 시황을 견인
 -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세계 교역이 둔화된다면 물동량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벌크선)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가 물동량 증가를 견인하겠지만 신규 선박 투입에 따라 시황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일본과 신흥국의 석탄 수요, 중국의 건설 수요 등 물동량 증가 요인이 존재
 - 그러나 시장 수급 상황의 개선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시황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
 - (유조선) 석유소비 감소세 지속 및 대규모의 VLCC⁸⁾선박 신규 투입으로 유조선 시황은 2011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12년까지 신규 VLCC 선박이 지속적으로 인도되면서 시장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 선진국의 실물경기 침체 및 친환경 기술 보급 확대로 낮은 수준의 석유소비현상이 지속되면서 유조선 시황은 2011년 수준 유지 전망

< 주요 해운지수 전망 >

구 분	2010	2011		2012(E)
		상반기	연간(E)	
컨테이너선 [HRCI (1997=1,000)]	554 (51%)	861 (104%)	860 (55%)	900 (5%)
벌크선 [BDI (1985=1,000)]	2,758 (5%)	1,367 (△57%)	1,450 (△47%)	1,500 (3%)
유조선 [AG-동아시아(WS)]	72 (72%)	55 (△37%)	54 (△25%)	55 (2%)

자료: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위 수치들은 기간중 평균치임.

8)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초대형 원유 운반선).

- (주요 현안) 해운업에는 ECA의 확대, 가중되는 비용 압력, 항로 재조정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ECA의 확대) 유럽 지역에 적용되어 오던 ECA⁹⁾가 2012년부터 북미 연안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해운업의 유황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기존에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운행 시 발생하는 유황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ECA이 적용되어 왔음
 - 한편 2012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해안선을 포함하는 북미 연안 지역까지 ECA로 확대되면서 유황 가스 배출 제한을 받는 선박이 늘어날 전망
 - 이에 유황가스 배출량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황함유량 1.0% 미만의 저유황연료유 및 유황저감장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중되는 비용 압력) 인력 수요 증가, 원자재가 불확실성 확대, 재난·해적 보험료 급증 등으로 해운업계의 비용 상승 우려가 높음
 - 신규 선박의 시장진입은 특히 숙련 인력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업의 인력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재난·해적 피해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선박 유지·보수 비용 증가도 비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이처럼 날로 상승하는 비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항로 재조정) 해운사들의 신규 항로 개척 및 저수익성 항로 폐쇄가 활발해지면서 해운업의 대대적인 항로 재조정이 나타날 수 있음
 -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선사들이 아시아 역내,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 수요 급증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 신설에 나설 전망
 - 한편 수익성 개선을 고비용·저수익 항로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선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해운업계 전반의 대대적인 항로 재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9) ECA (Emission Control Area, 배기가스 통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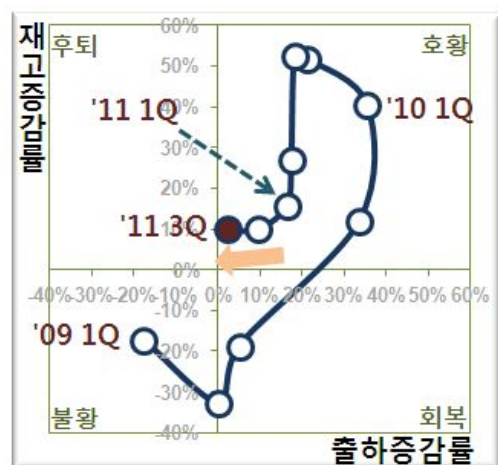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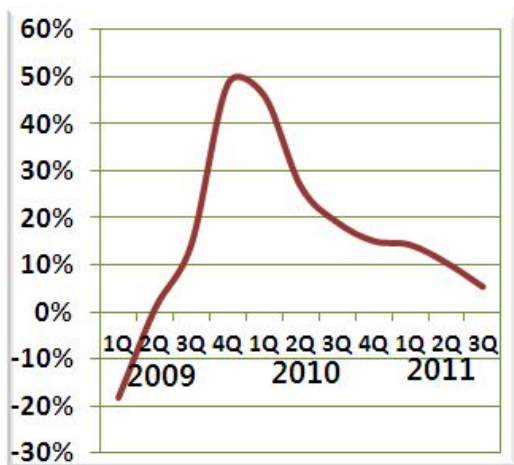
⑦ IT제조업

2012년 IT제조업은 그동안 산업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경기의 둔화가 예상되어 업종 경기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경기 동향) 2011년 3/4분기 현재 IT 제조업은 호황 국면에서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

- (생산 및 재고·출하) IT제조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
 - 2011년 들어 제조업 ICT 생산지수는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
 - 재고-출하 사이클상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
- (부문별 경기) 반도체와 패널 업종이 불황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중심의 완제품 시장도 침체 국면에 진입
 - 반도체와 패널의 국제 가격 급락이 지속되면서 관련 수출도 부진한 모습
 - 또한 그동안 국내 IT제조업 성장을 견인했던 스마트폰 시장 역시 경쟁 업체의 공격적인 전략으로 성장세가 크게 위축

<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2년 전망) 그 동안 IT제조업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 (수출 증가세 둔화) 2011년에는 수출이 IT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2012년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둔화로 세계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IT 제품의 수요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존재
- 다만,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IT 수출의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반도체 및 LCD 패널 시장의 침체 지속) 2012년에도 반도체 및 LCD 패널 부문의 경기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LCD 패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국내 업체들이 범용 LCD 생산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가능성도 증대
- 다만, 반도체와 LCD 두 업종의 전면적인 치킨 게임이 전개되어 업계의 생산 라인 구조조정과 후발업체의 퇴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면 2012년 하반기에 시장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

< IT제조업 전망 >

구 분	2010	2011(E)	2012(E)
생산 (조 원)	284 (25%)	295 (4%)	300 (2%)
수출 (억 달러)	1,539 (27%)	1,615 (5%)	1,650 (2%)
수입 (억 달러)	756 (22%)	860 (14%)	990 (15%)

자료: 실적치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 제조 산업은 반도체 등 부품산업과 정보통신, 컴퓨터 등 완제품 산업을 합친 것임.

- (주요 현안) IT 산업의 무게 중심 이동,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시장 양분, 업계의 특허 전쟁 등이 I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IT 산업의 무게 중심 이동) 글로벌 IT 기업들이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결합해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 등 IT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
 - 거대 IT 제조업체인 HP가 PC 사업부문을 분사하거나 매각하고 영국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소프트웨어가 IT산업을 주도
 - 향후 IT제조업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보임에 따라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 중심의 한국 IT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
 -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시장 양분)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애플식의 수익 모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
 - 특히, 구글이 유료화된 뉴버전의 안드로이드 개발을 통해 애플과 경쟁하려고 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현 시장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도 존재
 -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는 현 애플과 반애플의 시장 구도를 애플과 구글의 과점적 시장 구도로 재편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IT 업계의 특허 전쟁) 특허 소송의 증가에 따라 IT 업체들의 특허 매입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특허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MS, 애플, 오라클 등과 구글 간의 안드로이드 체제에 대한 특허 분쟁, 구글과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 막대한 배상 규모와 향후 경영부담 등 소송에 따른 위험 증가
 -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관련 업체가 특허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특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

⑧ 건설업

2012년 주택 부문 경기가 소폭 반등세를 보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건설업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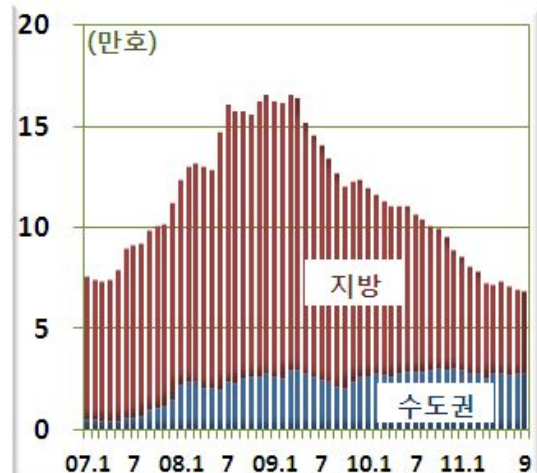
○ (2011년 경기 동향)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 침체의 장기화

- (건설기성) 건설경기 동향지표인 건설기성액¹⁰⁾이 모든 부문에서 감소
 - 2011년 3/4분기 건설기성액은 건축·토목 부문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 2011년 연중으로도 감소세 지속
- (주택 시장) 지방 미분양 주택은 감소중이나 수도권은 해소 미흡
 - 전체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3월 16만여호를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나 2011년 9월 현재 약 6만 8,000호로 감소
 - 지역별로는 2009년 이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높은 수준을 지속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미분양주택수 >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기성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10) 건설기성액은 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 (2012년 전망) 주택 부문 경기가 소폭 반등세를 보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공공·토목 부진 지속) 대규모 국책 사업의 확대 추진이 어려워 보여 2012년 공공 수주액은 2011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12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어 SOC예산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계속 사업 중심으로 배분되어 공공·토목 부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또한 지자체의 재정악화 등으로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 규모 자체는 전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민간·건축 소폭 개선) 장기 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건축 부문 건설 경기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가 기대
- 또한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수직 증축 등이 허용될 경우 건축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2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계획에 따른 청사 건립 공사 발주 등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

(단위 : 조 원)

		2010	2011(E)	2012(E)
주체별	공공	29 (△44%)	26 (△10%)	26 (0%)
	민간	55 (3%)	58 (5%)	60 (3%)
공종별	토목	35 (△29%)	31 (△11%)	31 (0%)
	건축	54 (△10%)	55 (2%)	57 (4%)
전체		89 (△19%)	86 (△ 3%)	88 (2%)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체별 수주에서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 제외하였으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 부동산 경기 부양책 기대 확산, 녹색 건설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 금융권의 PF 대출 회수가 진행될 경우 건설 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PF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저축은행 퇴출이 진행되고 있는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이미 주택시장의 침체로 중소 건설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PF 대출 등에 대한 자금 회수를 요구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존재

- (녹색 건축의 부상) 광범위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 건축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

-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전기 사용료 인상이 검토되는 등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단열, 창호 등 친환경 건설 기준의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업계 내외에서 녹색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경기 부양책 기대 확산) 2012년에 치러질 예정인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 출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4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치러질 예정이고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실시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추진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산업별 담당 연구원

- 【총 관】 한상완 산업연구본부장 (swhan@hri.co.kr, 2072-6230)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 【조 선】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2072-6232)
- 【기 계】 이원형 연구위원 (lee@hri.co.kr, 2072-6233)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
- 【자 동 차】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2072-6237)
- 【철 강】 김필수 선임연구원 (phil7941@hri.co.kr, 2072-6238)
- 【석유화학】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
- 【해 운】 전해영 연구원 (haloween@hri.co.kr, 2072-6241)
- 【IT 제조】 장후석 연구위원 (chahus@hri.co.kr, 2072-6234)
- 【건 설】 이원형 연구위원 (lee@hri.co.kr, 2072-6233)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5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0월28일	11월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32	2.07	-0.25%p
	엔/달러	92.93	88.43	81.19	75.94	78.09	2.15 ¥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177	1.3722	-0.0455\$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231	12,044	-187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9,050	8,640	-41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54	3.43	-0.11%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04.9	1,129.9	25.0 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929.5	1,870.0	-59.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0월28일	11월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3.64	94.12	0.48\$
	Dubai	78.06	73.14	88.80	107.13	104.31	-2.82\$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23.07	320.01	-3.0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